

올해도 나타난 ‘얼굴없는 삼계천사’ 시민공감 열린대화 본격 추진

임실군에 4억1060만원 거액 기부... 5년간 기부 누적액 20억9100만원

일명 ‘삼계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임실군을 찾았다. 부모의 고향이 임실군 삼계면이라는 인연으로 올해까지 5년째 이어온 그의 불우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도 20억원을 넘어서었다. 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얼굴없는 삼계천사’가 지난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4억106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거액을 소리 없이 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얼굴없는 삼계천사의 선행은 2021년부터 5년째 이어 오고 있다. 기부 첫 해에는 3억7090만원, 2022년 4억3030만원, 2023년 4억5090만원, 2024년 4억 284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거액의 기부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쾌척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누적액은 20억9100만원을 넘어섰다. 본인이 누구인지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는 조건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본인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랑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인 임실이 이웃 간에 돕고 사는 따뜻한 고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군은 기부금을 저소득층 1,178세대에 가능한 설 명절 이정에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그의 기탁 조건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예년과 같은 기탁 조건과 방식으로 첫째 익명을 보장해 주고, 둘째 대상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5개월 동안 일정한 날에 입금되도록 해줄 것.

셋째 5개월 후 지원 결과를 받아보는 것 이외 어떠한 단서는 달지 않았다. 군은 그의 소중한 뜻에 따라 자녀가 1명이면 30만원, 2명이면 40만원, 3명 이상은 50만원씩 5개월간 연속적으로 매월 같은 날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도 일시금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대상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만전을 기하고, 삼계천사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람 편지를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5년이란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연초 설 명절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 기부해 주신 그분의 소중한 뜻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탁해 주신 거액의 기부금은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모든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 1만여명 대상 연간 12만원

순창군이 올해도 65세 이상 노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의 이·미용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영일 군수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첫발을 내딛던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년째를 맞이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군비 12억 1,500만원을 투입하고, 현재 순창군 관내 53개 이·미용업소와 협약을 체결해 어르신들이 관내 모든 이마용 업소에서 이마용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금은 상·하반기 각각 6만원씩 나눠서 지원하며, 약 1만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성별 맞춤형 바우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해 협약업체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군수는 “이·미용 서비스는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 복지”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순창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장애인 재활운동실 본격 재개

순창군이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재활서비스를 시작한다. 군은 장애인재활운동실과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본격 운영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애인복지관에 위치한 재활운동실은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전문 인력이

1:1 맞춤형 건강상담과 운동 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서비스와 연계해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며,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활운동실은 총 2,513명의 이용자가 참여하며 장애인의 재활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활 운동을 지도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위생용품과 영양제 지원, 재활보조기구 대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일부터 23개 읍면동 대상 현장 소통행정



남원시가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 산업도시 남원’을 목표로 2025년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 행정을 오는 20일부터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운봉읍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사진)은 “2025년은 ‘푸른밤의 해(을사년)’로 지혜와 도약을 상징하는 해”라며, “이번 열린대화를 통해 지혜롭게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남원이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화에서는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KTX 남원역 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응 등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설명할 예정으로 남원이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확신과 희망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중심의 열린 현장 행정을 실현할 방침으로 제안된 사항들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2025년에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화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남원, 오늘보다 더 나은 남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푸른밤의 해를 맞아 남원이 더 큰 희망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되는 ‘2025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는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시장이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는 현장 소통정책으로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될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춘향제 담당자 업무역량 워크숍을 15일 진행했다.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담당자 업무역량 워크숍

남원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될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춘향제 담당자 업무역량 워크숍을 15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25명의 전·현직 담당자들이 축제 실무 노하우 공유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5회 춘향제 기본계획 및 향후 진행 로드맵 공유 △축제기획에 관한 전문가 특강 △전·현직 담당자들 간의 자유토론 및 경험 공유로 구성, 실질적인 논의와 학습의 장이 되었다. 전문가 특강은 수원 화성 별빛축제

등 다수의 축제를 총 감독하고 남원시 리플러스 사업단 추진단장인 문화기획자 류재현 감독을 초청, 축제 기획 및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이어 진행된 전·현직 업무 담당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춘향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광한루원 및 요천면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춘향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한 해를 준비하는 농업인을 위해 1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문작목교육과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으로 구성,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전문작목교육은 오이, 만감류, 양파, 토마토, 포도(샤인머스켓, 캠벨), 양봉, 딸기, 복숭아, 사과, 한우 등 총 10개 작목으로 구성되며,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동일 작목도 2회 이상 진행 시 교육 내용을 다르게 편성해 농업인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킨다.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은 총 17회 열리며, 농기계 안전교육과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등을 주제로 다룬다. 이는 작목별 교육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과 공익직불제 관련 필수 내용을 강조하며, 실용교육은 남원시민과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원하는 작목과 시간대의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임실군이 안전한 농작업 활동 영위와 특수 농업기계 사용 중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스카더) 면허취득 교육생을 모집·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하여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직업 전문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이달 24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기계 이용을 도모했으며, 2012년부터 매년 교육을 지원하여 작년까지 약 850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